

제주 복식의 다름이 조선의 ‘갓’ 문화에 끼친 영향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한국복식사 전공

mjlee815@aks.ac.kr

I. 머리말

II. 제주의 풍속과 복식

III. 제주 모자의 특징

IV. 조선 ‘갓’으로의 습합

V. 맺음말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9-C08).

I. 머리말

제주의 복식은 육지의 복식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는 누구의 말인가? 제주사람들의 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육지인의 시선이었으며, 육지인으로서 제주도의 복식을 본 사람들은 제주도로 파견된 관인 또는 제주도로 유배를 간 사대부들이었다.

그렇다면 제주의 복식은 왜 육지의 복식과 다른 것일까?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속한 섬이다. 그러나 자연·지리적 경관과 생활환경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르다. 제주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관할의 도제(島制)에서 1946년 8월 1일 독립자치제인 도(道)로 승격되었다. 그 전에는 탐라국(耽羅國)으로 본토인 한반도와는 하나의 자치국으로서 교류하다가 1273년(원종 14)부터 약 1세기 동안 원의 지배를 받았고, 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설치하고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세워서 말, 소, 양 등을 방목하였다. 조선조 태종 때에 이르러 성주(星主)·왕자(王子)의 호칭을 제거하고,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을 설치하여 제주목(濟州牧)과 함께 삼읍으로 불리면서 전라도로 편입되었지만 복식에서만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제주 풍속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충암(沖庵) 김정(金淨, 1486-1521)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확인된다.¹ 김정은 “제주의 풍토는 놀라울 정도로 색다른 풍토이지만 그 가치 면에서는 추구할 것이 없고, 날씨가 변화무쌍하여 의복과 음식 조절하기가 어려워 병이 생기기 쉬우며, 구름과 안개, 비와 바람이 많아 음습하고 벌레가 많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기술해 놓았다.

1 『제주풍토록』은 김정이 기묘사화로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견문한 것을 기록한 풍토기이다.

이후 제주목사로 파견된 이원조(李源祚, 1792-1872)²는 『탐라지초본』에 제주의 복식은 “모립라관(毛笠蘿冠)을 쓰고 구의피말(狗衣皮襪)을 입는다.”고 하면서 “모립라관은 풍우에 잘 견디며, 구의피말은 노숙(露宿)을 하거나 산행(山行)을 하는데 편리하다.”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처럼 유배자 또는 관리자가 되어 제주를 본 사람들은 자연·지리적 환경의 다름이 육지와는 다른 복식을 탄생시켰으며, 그들의 반농반어의 생활과 함께 목축, 바다와 같은 특수한 생활이 결국 그들 나름의 고유복식을 형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킹덤’이 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조선인들이 착용한 ‘갓’이었다. 킹덤은 한국의 좀비를 다룬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각각의 신분에 맞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갓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패션아이템으로 급부상하였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대표적인 관모인 갓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제주의 다양한 모자에 대해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갓’문화로의 습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제주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의 풍속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풍토록』, 『제주풍토기』, 『탐라지초본』 등의 문헌을 통해 제주의 풍속과 복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제주의 복식 중 특히 목자들이 착용하는 가죽감티, 털벌립,

2 이원조의 호는 응와(凝窩)이며, 1809년(순조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37년(헌종3) 사간원 정원을 지냈으며, 1841년 강릉부사로 있던 중 구재룡(具載龍)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1843년(헌종 9) 6월까지 재임하였다.

3 킹덤은 한국의 좀비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미국의 전자 상거래시장인 amazon.com에서는 킹덤에 등장하는 갓, 전립(顛笠), 정자관(程子冠), 유건(儒巾) 등의 다양한 모자를 조선의 전통모자라고 소개하며 판매하고 있다. 2020년 8월 4일 현재 갓은 119.90\$, 전립은 109.98\$ 등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재고가 없으니 서둘러 주문하라는 메시지가 달려있다.

정동벌립, 대패랭이 등과 함께 망건, 총모자, 양태 등 제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모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제주의 다양한 모자가 조선의 ‘갓’문화로의 습합을 가능하게 했던 주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갓을 비롯한 조선의 모자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유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드라마 킹덤을 통해 새롭게 부각된 갓은 현대에서도 유용한 새롭고 멋진 모자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제주의 다양한 모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조선의 갓이 박물관 속의 모자가 아니라 세계인의 패션아이템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제주의 새로운 모자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Ⅱ. 제주의 풍속과 복식

제주 풍속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충암(冲庵) 김정(金淨, 1486-1521)이 쓴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시작된다. 이후 규창(葵窓) 이건(李健, 1614-1692)의 『제주풍토기』와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탐라지초본』 등에서 제주의 풍속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속에 제주복식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있었다. 이후 제주도 복식에 대한 조사는 1986년 『한국민속종합보고서』를 시작으로⁴ 조선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4 풍토록에서는 복식에 대한 언급이 소략하기 때문에 1986년에 작성된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주도편을 중심으로 제주의 복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의 고유복식인 갈옷, 목자복, 해녀옷 등으로 조선시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정치 개혁에 앞장섰던 도학자이자 정치가로 기묘사화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이다.⁵ 『제주풍토록』은 김정이 제주 유배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제주의 기후부터 가옥형태, 잡신과 뱀을 숭배하는 풍습, 그로 인한 무당의 폐해, 언어와 풍속, 거친 인심과 관리의 포학, 지세와 토질, 동물과 조류, 어류, 쌀과 술, 소와 소금, 해산물과 토산물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중 기후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⁶

기후는 겨울이 혹 따뜻하고 여름이 혹 차가우며, 날씨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아 바람과 공기가 온난하지만, 사람에게에는 심하게 뽀족하고 날카로우며 사람의 의식(衣食)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기 쉽고, 운무가 음침하게 가리고 하늘이 맑게 갠 날이 적고, 질풍과 궤이한 비가 수시로 내려 찌는 듯 더워 답답함이 끓어오른다.

제주의 평균기온은 14.7℃이며, 연평균 1,440mm의 강수량을 보인다. 바람은 연평균 4.8m/s로 온화하지만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심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낮으며 폭풍이 1년에 13회 이상 불며, 태풍이 불 때에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하였다.⁷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복식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제주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생활전반에 영향을 끼쳤으며, 제주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만들었다고 이해된다. 이건의 『제주풍토기』에는 여인들의 척박한 삶을 기록하고 있다.⁸

5 양순필, 「충암의 제주풍토록 소고」, 『어문논집』 22(1981), 129쪽.

6 김정, 『제주풍토록』.

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7편, 의생활, 08, 제6장 제주도 지방(1986).

8 이건, 『제주풍토기』, 이건은 선조(宣祖)의 7남인 인성군(仁城君)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1628년(인조 6) 광해군 복위 모의에 아버지 인성군이 가담했다 하여 작위를 삭탈 당하고 전라도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이배(移配)되었다.

섬 중에 여인들이 물을 길는 자는 머리 위에 이지 않고 등에 지어 가는데
 벌통 같은 긴 통에 물을 길어서 지고 가는 것은 매우 괴상하다. 비단 물
 길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지고 가는데
 마치 남성들이 자목을 지고 가는 것 같다. 또 여인들이 방아를 찧을 때는
 군취하고 힘을 합하여 절구공이 노래를 제창하면서 찧으므로 경각에 두어
 휘[곡(斛)]의 곡식을 능히 장만할 수 있으나 그 노래 소리가 슬프고 처량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머리에 짐을 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고 다닌다’
 는 사실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물을 길는 것도, 나무를 하는 것도 모두
 여자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이는 제주의 길이 험하여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물을 길거나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모두 등에 진다고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조차 슬프고 처량해서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자들의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제주의 남자들은 공물(公物)과
 사물(私物)을 운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배를 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보니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아 남자의 수는 여자의 수보다
 훨씬 적다.⁹ 노동인구가 부족하다 보니 물질을 하는 것도 여자들의 몫이
 되었다. 이건의 『제주풍토기』에 수록된 물속에서의 생활상은 다음과 같
 다.¹⁰

해산에는 단지 생복(生鰯), 오적어(烏賊魚), 분곽(粉藿), 옥두어(玉頭魚) 등 수종
 이 있고 이밖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은 없다.
 그중에서도 천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9 제주교육박물관, 『탐라지초본』 상(2007), 54쪽

10 李健, 『濟州風土記』.

때에는 소위 잠녀가 빨가벗은 알몸으로 해정(海汀)을 편만하여 낚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올리는데 남녀가 상잡(相雜)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해녀들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물자의 부족에 기인했다. 이후 해녀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왜구들이 해변가 마을에 자주 나타나 식량이나 물건을 약탈하고 해녀들을 겁탈하면서부터이다. 이에 해녀들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고안해 낸 옷이 현재의 해녀옷이 되었다.¹¹

제주의 목축 또한 육자와는 다른 삶이었다. 목축은 고려 시대부터 국가의 말을 관리하고 기르던 목축업자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농사와 함께 제주의 중산간 마을에서도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다. 『제주풍토기』에 기록된 목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

섬 중에 국마를 여러 곳에 치고 있고 양현에서도 역시 그리하고 있다. 마둔은 매우 많아 천지현황으로 글자를 배정하여 둔(屯)의 이름을 삼았다. 일 둔의 마필 수는 적어도 백 여필에 불하(不下)하고 목자의 수는 이삼(二三)인에 불과하다. 소위 목자라 함은 목양(牧養)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여름과 가을에 풀이 자라날 때는 말이 운폐(殞斃)의 환(患)이 없으나 한겨울과 이른 봄에 풀이 말라 죽은 때에는 말이 기아로 죽는 수가 하도 많아서 이루 기록할 수가 없다.

목자들의 수가 마필의 수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은 목자들의 일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생활영역은 주로 산간지역에서 추위와 맞서는 일이다. 한라산은 여름철에도 빙설이 있을 정도로 춥다. 따라서

11 장애란·안명숙,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탐라문화』 18(1997), 333쪽.

12 이진, 『제주풍토기』.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온이며, 그들이 즐겨 입는 옷 또한 추위를 막아주는 개가죽두루마기와 가죽버선, 가죽발레 등이다. 이외에도 목자들이 착용하는 다양한 모자들이 있다. 대패랭이는 대나무를 얇게 잘라 만든 것으로 햇빛을 가리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정동벌립은 땀샘이 덩굴로 만든 모자로 챙이 넓어 햇빛이나 비를 막아 줄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마소를 몰 때 나뭇가지나 가시덤불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주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들 패랭이나 정동벌립은 모두 털벌립과 유사한 형태로 제주의 대표적인 모자들이다.¹³

Ⅲ. 제주 모자의 특징

제주의 유목문화에서 발달한 목자복의 특징은 목축의 부산물인 가죽이나 털을 이용한 기술 및 복식의 발전을 가져왔다. 목자들이 착용한 모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 챙이 발달한 '갓'형태의 가죽감티를 비롯해, 털벌립, 정동벌립, 대패랭이 등이다. 특히 말의 부산물인 가죽이나 말총, 쇠총 등의 풍부한 원자재는 다양한 모자 재료가 되어 총모자, 망건 등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제주의 다양한 고유모자와 제주의 기술로 만든 망건, 총모자, 양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죽감티

가죽감티는 제주 목자들의 방한용 모자이다. 감태라고도 한다. 겨울철

13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말테우리』(2015), 199쪽.

노루를 사냥할 때 많이 착용하였으며, 1930년대까지도 실생활에서 착용하였다. 감티는 작은 크기의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오소리 가죽을 최상으로 치고, 주로 개가죽을 많이 사용하였다. 상인들을 통해 본토에서 들여온 산달피 가죽으로도 만들었으나 가죽이 얇고 따뜻하지 않아 별로 애용되지는 않았다.¹⁴

가죽감티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가죽은 소재자체가 딱딱하고 무거워 남자들이 주로 바느질을 하였으며 바느질방법은 홈질, 휘갑치기, 온박음질, 코걸이방법 등을 이용했다. 그림1의 가죽감티도 앞과 뒤를 연결할 때 감침질을 하였으며, 끈이나 뒷덜미를 덮는 부분은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여 목에 밀착되게 만들었다. 가죽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가죽감티는 머리를 덮고 뒷목덜미까지 내려오도록 하여 말을 타거나 걸을 때 뒷목에 드리워진 부분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또한 모자의 형태 유지를 위하여 귀 옆에서 정수리까지의 술기 부분에 윤노리 나무를 끼워서



그림1-가죽감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그림2-털벌립,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14 김의숙, 「제주도 목자복 연구」, 『탐라문화』 11(1991), 221쪽.

고정시켰으며,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절에나 쓰는데 고사리 23가리를 꺾어서 머리 위에 얹은 후 감티를 쓰면 훨씬 시원했다고 한다. 이런 모자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제주의 고유양식이다.¹⁵

2. 털벌립

털벌립은 털병거지를 가리키는 제주도 방언이다. 그림2의 털벌립은 모정 부분과 양태 부분으로 구성된 갓의 형태로 되어 있다. 쇠털로 만들어진 농모의 하나인 정동벌립과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비바람을 견뎌내는 힘이 있어 농부들은 장마 때 갈옷을 입고 우장을 쓴 차림에 털벌립을 썼다. 털벌립은 내구력이 좋아 주로 비오는 날 착용하였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갓 대신 제사 때에도 털벌립을 씌으로써 제주인에게 털벌립은 귀한 모자였다. 털벌립은 말털과 쇠털을 콩물과 아교로 반죽하여 모자 틀에 골고루 펴놓고 이겨서 눌러 찍는 것으로 육지에서 말하는 전립(顛笠)이다. 털벌립은 빗물은 물론 화살도 뚫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며, 짐승의 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남자들만 썼다.¹⁶

3. 정동벌립

정동벌립은 제주도에서 밭일을 하거나 소나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쓰던 모자이다. 정당벌립이라고도 한다. 정동벌립은 모정과 양태가 있는 갓의 모양으로 주로 남성들이 농한기에 만들어 노동용으로 사용했으며 잘 만든 것은 나들이할 때도 쓰고 다녔다.¹⁷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동벌립은

15 김동욱, 『증보한국복식사연구』(아세아문화사, 1973), 118쪽.

16 김의숙, 「제주도 목자복 연구」, 『탐라문화』 11(1991), 226-227쪽.

1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정동벌립.

야산에 자생하는 땡땡이 덩굴인 정동을 뜯어다 1년 정도 말려 조금씩 동그랗게 말아서 두었다가 물대야를 옆에 두고 축이면서 만든다. 정동벌립은 애월읍 귀덕리가 주산지였으며, 주로 귀덕 1리에서 짰다. 정동벌립은 만드는 것이 까다롭고 관리가 어려워 자랑삼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벌립청에 모여 남자들이 주로 짰다. 그러나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제주인들에게는 단지 귀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목자들에게는 이상적인 모자였다. 정동벌립은 형태가 안정적이며, 외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가시가 모자에 걸리면 바로 미끄러져 모자가 벗겨지지 않으며, 챙이 넓어 머리카락이나 얼굴에 가시가 닿을 염려가 없다. 원시림이 무성한 한라산을 누비며 살아야 했던 목자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모자였다.

정동벌립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속벌립’이라고도 한다. 바람부는 날 이 모자를 쓰고 걸어가면 넓고 가벼운 차양이 까딱까딱하므로 마치 ‘사람이 약속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곱고 실용적인 특징이 있다.¹⁸



그림3- 정동벌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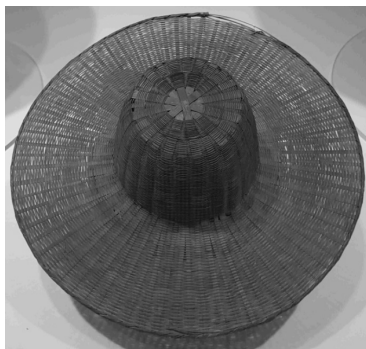


그림4- 대패랭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18 고부자, 「제주도 모자류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복식』 17호(1991), 132쪽.

4. 대패랭이

대패랭이는 대나무로 만든 갓 형태의 모자이다. 그림4의 대패랭이를 보면 정동벌립이나 털벌립과 형태상 차이는 없다. 다만 대패랭이는 정동벌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실용적이며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가볍고 통풍이 잘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들에 나갈 때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했다. 대패랭이는 ‘신의대’ 또는 ‘죽대’라고 하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죽순이 피기 전인 음력 2-3월에 채취하며, 참나무나 후박나무, 신나무 아래에서 자란 것일수록 마디가 길고 유순하여 상품으로 쳤다.

성산면 수산리와 난산리에서 제작되며 성산면, 구좌면 등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대나무로 만든 패랭이라 할지라도 피죽(皮竹)으로 만들면 더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외형이 더 아름다웠다. 패랭이를 만드는 법은 대오리를 실처럼 만드는 과정과 모자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립은 육지와 형태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제주의 더운 날씨에 맞게 챙이 더 넓다.¹⁹⁾

특히 대패랭이를 만드는 기술은 갓을 만드는 기술과 상응한다.

5. 총모자

총모자는 갓의 모정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우’라고도 한다. 갓은 총모자부분과 양태를 각각 제작한 후 입자장에 의해 총모자와 양태가 합쳐져 비로소 갓이 된다. 총모자의 주재료는 가늘고 섬세한 말총이기 때문에 말총으로 짠 총모자는 제주가 원산지일 수밖에 없다.

19 김의숙, 「제주도 목자복 연구」, 『탐라문화』 11(1991), 228-230쪽.

총모자는 말총을 다룰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도구로써 총모자를 만든다. 갓의 대우부분에 해당하는 총모자는 말총이나 쇠꼬리털로 만들며 말총의 길이는 86cm 정도의 검은색을 사용하지만 쇠꼬리털은 40cm 정도의 비교적 짧고 밝은색을 사용한다. 날줄은 길이가 긴 말총을 사용하고 절임줄은 쇠꼬리털을 사용한다. 총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로 만든 일골 즉 총모자골, 모잡골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야 하며 이 틀을 걸어 둘 주개판과 말총을 엮고 말총가닥을 깨끗하게 끊어내는 데 사용하는 총바늘이 있어야 한다. 총모자를 짠 다음 모자의 형태를 고정시키고자 총모자를 삶을 때 사용하는 먹골과 총모자에 먹칠을 하기 위한 먹술과 먹물을 담아 둘 먹사발 등도 필요하다.²⁰

제주에서 총모자를 만드는 지역은 주로 한라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도두(道頭), 이호(梨湖), 외도(外都), 애월(涯月) 등이다. 총모자는 일청에 모여서 작업을 하는데 총모자는 양태와 한 틀을 이루어야 하고, 품질도 같아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²¹ 결국 좋은 갓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업과 협업이 필수조건이 된다.

6. 양태

양태는 일명 양대(涼臺)라고도 하며 모자의 차양부분에 해당한다. 양태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제주도의 특산물이다. 그러나 『성호사설』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테가 있는 갓을 쓰는데, 대를 엮어 테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김제(金堤)의 것이 으뜸이고 제주의 것이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20 장경희, 『갓일』(화산문화, 2001), 60-66쪽.

21 고부자, 「제주도 모자류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복식』 17(1991), 127쪽.

보아²², 담양이나 김제 등 육지의 대나무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주도에도 자생하는 대나무가 있다. 그러나 양태의 재료인 대나무는 전남 담양과 진주 등지에서 나는 본토산 분죽을 쓰기 위해, 육지에서 배편으로 실어와 제작했다. 양태에 사용하는 대나무는 마디 사이가 40cm 내외의 것으로 음력 9-10월에 벌채한 것을 선호했다. 양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는 현재까지도 거의 그대로 전해 내려온다. 양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대나무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은 땃개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훑을 때 사용하는 무릎짚[육지: 훑가죽], 대를 나릴 때 대고 문지르는 대칼과 솥돌, 빗대살을 훑을 때 사용하는 빗대클[육지: 조름대], 양태를 절이는 둥근 원형판인 양태판이[육지: 양판], 양태판이를 받치거나 양태용 도구를 넣어두는 수납구인 탕에구덕 등이 사용된다.²³

한편 양태는 그 넓이에 따라 시대를 가늠할 정도로 유행을 탄다. 효종 때에는 총모자가 너무 높고 양태가 너무 넓어 법부로 하여금 금지시키도록 하자는 상소가 있었다.²⁴ 이는 모자가 단지 실용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양태가 제작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7. 망건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먼저 머리를 단정히 빗어 정리하고 상투를 튼 다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없도록 이마에 두르는 머리띠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망건의 제도는 원대 중원지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2 이익, 『성호사설』 8권, 인사문, 생재(生財).

23 장경희, 『갓일』(화산문화, 2001), 67-77쪽.

24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계축).

말총으로 만든 망건은 고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최초의 제작지점은 말이 풍부했고 몽골 장인들이 살았던 탐라였다고 한다.²⁵ 망건은 검은 비단으로 대용할 수 있으나 비싼 수입품인 비단보다는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말총을 선호했고²⁶ 이에 말총을 엮어서 그물 모양으로 짰다.²⁷

특히 말총으로 짠 망건은 임금의 중요한 하사품 중 하나였다. 당상관으로 제수받는 신하들에게 하사하는가 하면²⁸, 1643년(인조 21)에는 백립과 망건을 제주에서 구해와 정조사(正朝使)에게 주기도 했다.²⁹

제주의 진상품은 말이었다. 제주는 해마다 허다한 말을 공마로 바쳤으므로 말의 부산물인 말총 역시 생산량이 많았다. 제주에서는 서민들도 대개 말을 길러 온 나라를 상대로 장사를 했다. 그중에서도 우황과 말총이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었으므로³⁰ 망건이나 모자류 등을 만들어 육지에 팔았다는 사실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8. 갓

조선의 갓은 패랭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패랭이류는 대우와 양태가 분리되지 않았다. 조선의 갓이 대우와 양태로 구분되는 것은 초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각각 따로 만들어서 한데 붙이는 조립형의 초립이 조선 갓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5).³¹

25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58권, 子餘筆記類 蘭室譚叢3, 網巾.

26 『세종실록』 134권, 오례, 흥례의식, 습.

27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8일(신유).

28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6일(경진).

29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12월 22일(임오).

30 이익, 『성호사설』 8권, 인사문, 생재.

31 장경희, 『갓일』(환산문화, 2001), 14-15쪽.



그림5-〈패랭이 만들고〉(왼쪽), 〈초립짓는 모양〉(오른쪽), 프랑스기메박물관 소장

그러나 초립은 대울의 굵기와 조밀도로만 구성되는 반면 조선 갓은 다양한 소재와 전문적인 제작방법이 추가되었다. 제주는 대우인 총모자를 말총으로 만들고, 양태를 대나무로 만든다. 또한 양태 위에 명주천이나 명주실로 덧짠 후 수십차례의 먹칠과 옷칠을 거쳐 갓을 완성한다.

망건을 뜨고 갓을 만드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분업화되고 있음을(그림 6, 7) 김준근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²

갓의 멋은 장인의 솜씨에 달려 있다. 특히 대우를 말총으로 만들게 된 것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 초 제주에서 생산되는 말총은 비단보다 구하기 쉽고 값도 싼다. 1420년(세종 2) 국왕이 명나라 사신에게 ‘마미망건(馬尾網巾)’ 두 벌을 선물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말총으로 만든 망건이 있었으며, 그 제작 수준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이후 『미암일기』를 쓴 유희춘(1513-1577)은 임금께서 망건을 하사하는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³⁴ 조극선(1595-1658)의 『인재일록』에서도

32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2008), 32쪽.

33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정사).

34 유희춘, 『미암일기』, 1574년 6월 13일



그림6-망건뜨기, 『조선풍속도』,
스알른 수집본



그림7-笠工, 『조선풍속도』, 매산 김양선 수집본

제주에서 생산된 말총갓, 말총망건 등이 육지로 올라 왔음을 기록하고 있다.³⁵ 이미 제주의 말총으로 만든 망건과 총모자가 조선의 갓문화를 완성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속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조선 ‘갓’으로의 습합

제주의 다양한 모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육지와는 다른 제주의 목축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모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주 는 말鬃을 공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부산물인 말총이 풍부했다. 목자들은 목축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외부환경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하는 목자들은 차양이 발달한 갓 형태의 모자를 사용하였으며, 제주에서 생산되는 말총, 쇠꼬리, 땡땡이 풀 등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35 조극선, 『인재일록』, 1615년 11월 초9일.

모자로 발전시켰다. 또한 모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모자제작 기술을 습득할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총모자, 양태, 망건 등은 항구를 통한 수출이 자유로웠고, 양태를 만들기 위한 대나무의 수입도 원활했다. 이에 제주의 자연지리적 환경 및 모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교통로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모자가 조선의 '갓'문화로 습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여기에서는 제주의 다양한 모자가 '갓'문화로의 습합을 가능하게 했던 제주의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갓의 원자재, 말총

말총은 말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말의 갈기와 꼬리의 털이다. 말총은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공예품과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적합하다.

제주의 말총은 관모공예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 길이는 50cm 이상이며 2년 이상 자란 말에서 추출할 수 있다. 말총을 베는 시기는 음력 3, 4월이 좋으며, 말총을 얻을 때에는 말의 꼬리부분을 잡고 어긋하게 베어내는데 긴꼬리 부분은 제외하고 모두 잘라낸다. 말총 약 60g을 구하기 위해서는 3마리의 말이 필요하다.³⁶

말총은 처음 만졌을 때 매끈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시각적으로는 다양하고 부드러운 모색과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이 난다. 말총의 표면은 매끄럽고 서로 달라붙지 않으며 가닥가닥이 잘 정돈되어 직조 시 투시성과 투과성이 매우 뛰어나다. 말총은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광택으로 은은한

36 장경희, 『탕건장』(화산문화, 2000), 55쪽.

자연스러움을 지니고 있으며, 겹겹이 쌓여 직조가 되었을 때에는 그 깊이를 더하게 된다. 이덕무(李德懋)가 지은 갓 연구(笠句)에서도 ‘탐라의 갓은 매미 날개보다 가볍다’³⁷고 하였는데, 말총 한 가닥의 무게는 약 0.02g이다.³⁸

제주의 말총은 조선시대 남성들이 썼던 망건, 탕건, 총모자를 비롯하여 종의(鬃衣) 등 관모류와 의복을 만들었다. 그러나 종의는 일찍 단종되었으며³⁹, 허리띠, 빗자루, 술, 망울, 끈 등 일상 공예품에도 자주 활용되었다.

1627년(인조) 소현세자의 가례 때 도감에서 세자가 사용할 말총갓을 제작하였다. 말꼬리 6냥, 자적사(紫的絲) 4푼, 진사(眞絲) 1푼, 편죽 28개 등이 소용되었으며⁴⁰, 조선후기와 비교해 보아도 재료의 큰 차이는 없다.

한편 17세기 조극선이 쓴 『인재일록』에는 제주의 뱃사람이 가져온 물건 중에서 말총으로 만든 갓 한 개, 말총으로 만든 관 한 개, 집(家)이 갖추어진 망건 하나를 비롯해 가죽으로 만든 겹옷, 바지, 배자 각 하나씩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다.⁴¹ 모두 제주의 말총으로 만든 관모류와 의복이다. 제주에서 만든 갓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 이는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이 지은 갓에 대한 연구(笠句)에서 확인된다.⁴²

등근 갓양태는 부처의 광배같고, 볼록한 갓모자는 의서(醫書)에서 그린 위갈네 [...] 벼슬아친 뺨 왼쪽에 산호 매달았고, 선비는 턱 양쪽에 비단 끈 드리웠네 [...] 옷칠 말리는 건 비 오고 구른 낱 틈타고, 아교로 붙이는 건 불기운을 빌려야지 [...] 영달하면 종립에다 갓신이 합당하고, 궁색하면

37 이덕무, 『청장관전서』 9권. “雅亭遺稿, 笠聯句. 耽羅薄於蜩.”

38 박예남, 「말총을 이용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5쪽.

39 박원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 『제주도연구』 48(2017), 126쪽.

40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일방의궤, 마미립, 규장각소장.

41 『인재일록』, 1615년 11월 초9일. “…… 叔主來話而去 所得於濟州者 聽笠一 家俱聽冠一家俱網巾一 皮短裘一 皮背子一 皮袴一 ……”

42 박지원, 『연암집』 4권, 영대정잡영(映帶亭雜咏), 립연구(笠聯句).

전립에다 쥔신이 합당하지 [...] 제주도 갓은 매미 날개보다 더 얇고, 고려 때 갓은 비취새처럼 파랗게 물들었지 [...] 습기찰세라 노끈으로 팽팽히 당겨 두고, 더럽혀질세라 갓집에 싸서 두네 [...] 머리 뒤로 젖혀 쓰면 방탕해 보이고, 이마 쪽으로 눌러 쓰면 성난 듯하네

머리 크기 다르지만 얇다면, 친구 사이엔 빌려줄 수도 있지

이 시를 보면 남자일지라도 갓의 형태나 갓을 쓰는 모습, 갓을 만드는 방법, 갓의 보관에 이르기까지 갓에 대해 훤히 꿰고 있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머리 크기가 같다면 친구사이에는 빌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제주의 갓을 갓는다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 갓은 매미 날개보다 더 얇다고 하여 그 기술의 정교함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비싸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영달해야 쓸 수 있는 것이 말총으로 만든 갓이었으니 제주에서 만든 갓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였음을 알 수 있다.

2. 제주의 장인, 갓일

『경국대전』을 보면, 갓을 만드는 장인으로 초립장(草笠匠)이 공조에 8명, 상의원에 6명이 있으며, 유립장(儒笠匠)은 상의원에만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또 사모장이 공조에 2명, 상의원에 4명이 있으며, 모자장이 공조에 6명, 상의원에 2명이 있으므로 모두 30명이다. 물론 양태장도 상의원에 2명이 있었으며 모관장(毛冠匠)도 상의원에 2명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경공장 안에만 모자와 관련된 장인의 수가 34명이므로 조선시대 모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모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갓은

표1-『경국대전』 소속 모자 관련 장인의 수

장인 \ 소속장인	공조	상의원	합
草笠匠	8	6	14
襦笠匠		2	2
紗帽匠	2	4	6
帽子匠	6	2	8
涼太匠		2	2
毛冠匠		2	2
합계	16	18	34

흑립을 통칭한다. 그러나 흑립인 갓은 한 번에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총모자부분과 양태부분을 각각의 장인이 만들면, 이 둘을 잇는 역할을 하는 입자장이 따로 있어 충무(忠武)나 거제도(巨濟島)에서 완성품을 만들었다. 결국 제주에서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와 대나무로 만든 양태를 수출하면 이를 합쳐서 완성시키는 것은 별도의 장인이었다. 이는 통영갓을 최고로 친다는 『임원경제지』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⁴³

이처럼 갓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그 공정(工程)이 중요하고 또 각자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1962년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도 ‘갓일’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공정을 포함해서 장인을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갓일을 보면, 1964년 처음 지정될 당시 총모자장 고재구(1897-1979), 입자장 김봉주(1903-1977)와 전덕기(1897-1972), 양태장 모만환(1887-1979) 등을 합하여 ‘갓일’로 지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통영에 거주하는 남자 장인들로 제1세대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198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며, 이후 2세대에 해당하는 보유자들은 모두 제주도 여인들로 지정되었다. 제주도 출신의 오송죽(1904-1983)과 김인(1920-2015)은 총모자장이 되었으며, 고정생(1904-1980)은 양태장이

43 徐有渠, 『林園經濟志』, 贍用志.

되었다. 이들은 제주에서 살면서 어려서부터 갯일을 보고 배운 세대들이다.⁴⁴ 1세대들이 남성들이고 모두 통영에서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제주에서 올라오는 총모자와 양태를 잇는 기술과 함께 대대적인 교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주로 통영에서 거주하며 갯일을 했다. 그러나 이들 1세대가 사망하자 총모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제주에만 있었으며, 그 때 중요무형문화재가 된 사람이 바로 김인과 오송죽이다. 김인은 중요무형문화재가 된 이후 갯일하는 장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으며, 제주에 있는 양태장 고정생과도 교류를 했다. 또한 이들은 자식들에게 전수교육을 시켜 양태장 고정생의 딸 장순자가 뒤를 이었으며, 총모자장인 김인 역시 딸 강순자에게로 전승되었다. 그러나 1세대 입자장들이 사망한 이후 조선시대처럼 총모자와 양태를 따로 만들고 입자장은 이를 연결하는 기술로 별도의 입자장이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1991년 예천 출신의 입자장 정춘모

표2- ‘갯일’ 장인의 출신지역 분포

기술 장인	총모자	양태	입자	비고
고재구	통영			1세대
김봉주		통영		
전덕기		통영		
모만환			통영	
오송죽	제주			2세대+ 3세대
김인	제주			
강순자	제주(김인의 女)			
고정생		제주		
장순자		제주(고정생의 女)		3세대
박창영			경기(가업 계승)	
정춘모			경기(가업 계승)	

44 이민주,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전수교육에 대한 고찰: 복식관련 전통기술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6호(2019), 18쪽.

가 갯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으며, 입자장 박창영 역시 2000년에 갯길로 지정받았다. 현재 정춘모와 박창영은 모두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이들 역시 선대에서 오랫동안 갯길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들로 갯길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다양한 모자가 육지의 갯으로 습합될 수 있었던 것은 옷보다는 관모를 중시했던 조선의 유교문화가 늦게까지 자리하고 있었으며, 갯을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1세대 장인들의 사망 이후 제주의 여인들에 의해 관모공예는 지속되었다.

3. 무역의 교통로, 바닷길

1709(숙종 35)에 만들어진 탐라지도 및 지도병서(地圖竝書)에는 제주도의 동서는 140여리이고 남북은 70여리라고 했다. 마을은 150곳이고 가구수는 8,955호이며 인구는 45,129명이었다.⁴⁵

제주의 마을은 전통적으로 해안가에 우선적으로 들어섰고 조선시대에도 규모가 큰 마을은 동서방향의 해안지대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 사람의 생업활동이 전통적으로 반농반어인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로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의 대표적인 공물인 말을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 조선 초 배를 호송했던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45 www.heritage.go.kr(2020년 7월 30일 검색).

46 김일우, 「조선시대 제주 關防施設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 65(2016), 311쪽.

47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2일(정사).

제주(濟州)가 바다를 격(隔)해 있어 민호(民戶)의 공부(貢賦)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였으니, 대호(大戶)·중호(中戶)·소호(小戶)를 분간(分揀)하여 그 토산(土産)인 마필(馬匹)로 하되, 대호(大戶)는 대마(大馬) 한 필(匹), 중호(中戶)는 중마(中馬) 한 필(匹), 소호(小戶)는 5호(戶)가 아울러 중마(中馬) 한 필(匹)을 내게 하여, 암수(雌雄)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려서 공부(貢賦)하게 하고, 기축년 봄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소서. 또 제주는 병선(兵船)이 없기 때문에 왜적이 계속 침입하고,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신구 수령(新舊守令)의 왕환(往還)으로부터 공사 조전(公私漕轉)의 출입(出入)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라도의 얼마 안 되는 병선(兵船)으로 내왕 호송(來往護送)하니, 그 폐단이 또한 심합니다. 비옵건대, 전라도의 병선장(兵船匠)을 보내어 병선 10척을 제조하고, 선상(船上)에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태워서 정박(碇泊)시켜, 왜적을 추포(追捕)하고 왕래하는 선박을 호송하게 하여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이처럼 말을 실어 오기 위해 제주에 보낸 배는 말을 실어 나르는 일 뿐 아니라 육지로 상품을 이동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특히 관모류는 제주 전 지역에서 행해지는 가내수공업으로 현전하는 민요에는 큰애기들이 모자를 만들기 위해 일청이 있는 지역과 구체적인 모자의 종류를 노래하고 있다.⁴⁸

조천근방 큰애기들은 망근청으로 다 나간다.
 신촌근방 큰애기들은 양태틀기로 다 나간다.
 벨도근방 큰애기들은 탕근틀기로 다 나간다.
 도두근방 큰애기들은 모자틀기로 다 나간다.

조천에서는 망건작업이 신촌에서는 양태작업이 화북에서는 탕건 작업이

48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민속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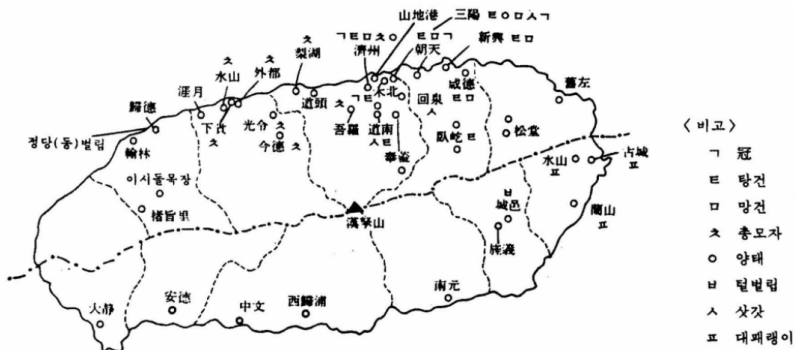


그림8- 제주도 지역별 관모 생산지⁵⁰

도두동에서는 충모자들기가 성행했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이 모두 일청에 모여 망건, 양태, 탕건, 충모자를 분업화해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8은 제주도의 지역별 관모 생산지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해안에 밀접한 지역은 물론 중간간 지역에서는 모두 양태를 만들고 있으며, 말총을 이용한 탕건, 망건, 충모자 등은 제주시가 중심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탕건은 화북, 삼양, 신흥, 도련, 조천, 함덕이 주 생산지이며, 망건은 조천, 함덕, 신흥에서 주로 만들고 충모자는 도두, 이호, 외도, 하귀, 함덕, 수산, 광령 등 북제주군에서 애월면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서쪽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은 주항구인 조천포와 별도포(화북)에서 수출입을 담당했다.⁴⁹ 조천은 옛날부터 상업지로서 망건의 집산지이기도 했다. 조천포에는 변북정(變北亭)이란 객사까지 마련하고 있어 망건, 탕건, 충모자 등의 재료와 제품의 수출입을 용이하게 했다. 조천·신흥·화북·도두는 조선시대부터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앙관리의 왕래가 빈번했던 지역적 특성으로 관모의 수요가

49 고부자(1991), 앞의 논문, 124쪽.

50 고부자(1991), 위의 논문, 123쪽에서 재인용.

많았다. 일청을 중심으로 모자를 만드는 제주의 생산량은 육지로의 수출이 제일 우선되었다. 『만기요람』에는 1722년(경종 2) 제주에 흉년이 들면 나리포의 곡물을 섬 안에 들여보내고 그 대신 갯 양대·물고기·미역 등의 물건을 회계하여 가져와서 그것을 팔아 곡식을 사들여 차차로 이전하였다⁵¹는 기록으로 볼 때 이처럼 나리포에서는 제주의 특산물인 종모(鬃帽), 망건, 죽모침(갯의 양태), 다시마, 표고버섯, 전복 등 제주의 특산물을 발매하였다.⁵² 이로써 제주의 포구는 조선의 갯 수요를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는 수출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본다.

V. 맺음말

이 글은 ‘제주의 복식은 육지의 복식과는 다르다’라는 명제를 기저로 제주의 복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고유복식과 풍속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중 목축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목자복 중 제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모자가 조선의 갯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제주모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제주의 모자가 어떻게 조선의 갯문화로 습합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의 풍토에 대한 기록은 유배를 가거나 관리로 파견된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충암 김정 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는 유배시 작성된 기록이며, 『탐라지초본』은 제주목사였던 응와 이원조가 읍지를 보완해서 편찬한 풍토록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고유복식 형성에

51 『만기요람』, 재용편 6, 제창, 나리포창.

52 『목민심서』, 호전 6조, 제3조 곡부(穀簿).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연지리적 환경과 생활환경에 기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목자복식 중 특히 모자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햇빛과 추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의 공물인 말에서 나온 풍부한 부산물로서의 말총은 제주인들의 생활 속에 남아 다양한 모자로 활용되어 육지에서 필요로 하는 망건, 총모자, 양태 등의 다양한 모자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모자가 조선의 갓문화에 쉽게 습합될 수 있었던 요인은 망건, 탕건, 총모자 등의 모자를 만들 수 있는 말총이라는 원재료와 갓에 필요한 총모자, 양태, 망건 등을 만들 수 있는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장인이 제주 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제주에서 생산된 모자는 육지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수출할 수 있는 조천포와 별도포 등의 포구가 주요 무역로가 되어 자연스럽게 조선의 갓문화로 습합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조선의 갓문화가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이 있었으며, 제주 전 지역에서 관모를 제작할 수 있는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망건을 비롯해 총모자와 양태를 공급할 수 있는 항구의 발달은 제주의 원천기술과 육지의 유통산업을 연계하여 조선의 갓문화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갓은 현재 한국인들의 일상에서는 착용되지 않지만 오히려 최근 한국문화가 기반이 된 영화·드라마 등에서 각광을 받으며 새로운 패션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의 총모자와 양태를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전수하고 개발하면서 현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모자문화로의 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世祖實錄』, 『仁祖實錄』, 『孝宗實錄』, 『英祖實錄』.
『經國大典』.
『萬機要覽』.
『牧民心書』.
『濟州風土記』.
『濟州風土錄』.
『耽羅誌草本』.
『四佳集』.
『星湖僿說』.
『熱河日記』.
『燕巖集』.
『林園經濟志』.
『五洲衍文長箋散稿』.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忍齋日錄』.
『眉巖日記』.

2. 단행본

김동욱, 『증보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이수여 천천히 구멍구멍 엮어 와수다』.
문화재청, 2018.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말테우리: 고태오의 말테우리 인생 70년』. 국립제주박물관, 2016.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 2008.
장경희, 『탕건장』. 화산문화, 2000.
_____, 『갓일』. 화산문화, 2001.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 7. 2006.

G.W길모어, 신복룡 역주,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7편. 의생활, 08, 제6장 제주도 지방, 1986.

3. 논문

고부자, 「제주도 모자류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복식』 제17권, 1991, 119-135쪽.

_____,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3권, 1986, 143-154쪽.

_____, 「제주도 여인의 속옷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한국복식』, 단국대학교석
주선기념박물관, 1986, 75-98쪽.

_____, 「제주도복식의 민속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고순희·장현주, 「제주 전통 털소재 복식의 유형과 특성」. 『복식』 제58권 9호,
2008, 114-128쪽.

김일우, 「조선시대 제주 關防施設의 설치와 분포양상」. 『한국사학보』 65권, 2016,
285-317쪽.

김의숙, 「제주도 목자복 연구」. 『탐라문화』 11권, 1991, 207-265쪽.

박예념, 「말총을 이용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원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본 제주의 유목문화: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48권, 2017, 73-136쪽.

양순필, 「충암의 제주풍토록 소고」. 『어문논집』 22권 1호, 1981, 129-143쪽.

이민주,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전수교육에 대한 고찰: 복식관련 전통기술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6호, 2019, 5-36쪽.

장애란·안명숙,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탐라문화』 18권, 2013,
331-349쪽.

4. 사이트

www.heritage.go.kr(2020년 7월 30일 검색).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의 다양한 모자가 어떻게 조선의 갓문화에 습합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제주의 다양한 모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육지와는 다른 제주만의 생활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중에서도 제주 목축업의 발달은 말총이라는 부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생산했다. 특히 목자들이 주로 사용한 가죽감티를 비롯해 털벌립, 정동벌립, 대패랭이 등을 만드는 제작기술의 발달과 함께 말총을 이용한 새로운 총모자, 망건의 제작은 조선의 '갓'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제주 모자의 특징과 제주의 자연지리적 생활환경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제주의 풍토를 기록한 『제주풍토록』, 『제주풍토기』, 『탐라지초본』 등을 통해 제주의 고유복식은 자연지리적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주의 가죽감티, 털벌립, 정당벌립, 대패랭이 등 다양한 모자와 말의 부산물인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 망건 등은 조선의 갓문화 확산에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주에서 생산하는 총모자, 양태, 망건 등이 조선의 '갓'문화로 쉽게 습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 장인들의 기술력과 모자를 수출입하기에 적당한 항구의 발달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투고일 2020. 6. 22.

심사일 2020. 8. 4.

게재 확정일 2020. 8. 4.

주제어(keyword) 제주(Jeju), 복식(Costumes), 풍속(custom), 모자(Hat), 말총(horsehair), 갓(Gat), 습합(acculturation)

Abstracts

The Effect of the Difference in Jeju Costume on the “Gat” Culture of Joseon

Lee, Min-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how various hats of Jeju influenced the ‘Gat’ culture of Joseon.

First of all, it was possible because Jeju had an access to different raw material, horsehair, as a by-product from herding horses compared to the main land of Joseon. Because Jeju served horses as tributes, it was confirmed that Jeju people had freely used horsehair.

Secondly, Jeju people already had hat manufacturing techniques due to shepherds who developed their skills to make hats that they use such as ‘gajuggamti(가죽감티)’, ‘tulbulps(털벌립)’, ‘jeongdong bulps(정동벌립)’, and ‘deparangi(대패랭이)’.

Due to abundant raw materials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there were cultures of making ‘Chongmoja(총모자)’, which is part of ‘Chorip(초립)’, using horsehair instead of using bamboo in Jeju. Also, they made ‘Manggun(망건)’ using horsehair, too.

Lastly, the natural geographical environment of Jeju, where the port developed, enabled Jeju’s culture to affect “Gat” culture of Joseon more easily.

In summary, abundant horsehair as a by-product from cattle ranchers, the skills of Jeju people who made various hats, and the natural geographic environment of Jeju to speed the spread of culture influenced the Joseon men’s hat, “Gat”.

